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총무실에서 열린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일자리 협력을 다짐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북 특화 일자리 정책 구상 발표

송하진 지사, 문 대통령 주재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서

지역 강점 활용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벨리' 추진전략 제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등 정부 협조 요청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전북의 일자리 정책 구상'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치를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송하진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북의

일자리 여건 계획 제안 등을 담은 일자리 정책 구상을 직접 발표했다.
전북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농업 농생명 관련(연구)기관 41개가 집적화되어 있고 식품종자 미생물 등 농업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북의 강점을 활용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벨리'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미 구축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ICT농기

계클러스터, ▲정읍 순창의 미생물, ▲새만금 첨단농업 등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농생명 연구개발 인프라와 연계시켜 '아시아의 농생명 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벨리 추진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농업의 블루오션으로 자리잡을 것임을 역설했다.
더불어 취약한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2017.7.1), GM 군산공장 폐쇄(2018.5.31)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근 전북의 고용주력기업 위축으로 전북경제 전체의 큰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상용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

고 군산 부안 새만금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공단지 조성 시 국가지원 대상을 농림 어업 1차산업에서 지역중점 전략산업도 포함시켜 특화농공단지의 입주업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단지 임대용지 추가 확보의 조건 완화 및 의무기업과 국내기업의 임대료 차등을 개선해 국내기업도 임대료를 1%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송 지사는 "농생명 신재생 상용차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 등 경제여건상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특화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조경단·조경묘 가치 재조명

전주시, 학술회의 열어...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추진키로

전주시가 조선왕조 발상지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재인 조경단과 조경묘의 가치를 재조명해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추진키로 했다.
전주시 시조묘소와 사당인 조경단과 조경묘는 조선왕조 발상지 전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역사·학술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시는 31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전라북도 지정문화재인 조경단(도 기념물 제3호)과 조경묘(도 유형문화재 제16호)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해 향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조경단과 조경묘의 문화재적 가치와 활용 방안 등을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조경단과 조경묘의 역사를 비롯해 의례, 관리와 운영, 건축특성, 보존과 활용방안 등 문화재의 진정성 및 완전성에 대한 가치 기준과 다른 유산 문화재와의 차별성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이국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조경단 및 조경묘의 역사와 의례'를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며 이들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어, 이동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경묘의 운영과 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안선호 원광대학교 교수의 '조경단 및 조경묘의 건축 특성', 박태건 원광대학교 교수의 '조경단 및 조경묘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서, 이재운 전주대학교 교수와 홍성덕 전주대학교 교수, 김지민 목포대학교 교수, 문이화 원광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조선왕조 발상지인 전주에는 경기전과 태조어진을 비롯해 조선왕조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지만,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학술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경묘는 1771년(영조47)에 세워진 것으로 영조의 친필 위패를 봉안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건축 양식을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조경단의 경우, 1899년(광무 3)에 조성된 것으로 고종의 친필인 대한조경단비가 있으며, 같은 시기에 조성된 태조 이성계의 5대조가 되는 이암부와 그의 부인 평강이씨의 묘소인 김원동 삼척의 준경묘와 영경묘는 이미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24호)로 지정돼 있다. /송호철 기자

신임 정병익 전북도 부교육감 부임

전북도교육청 신임 부교육감에 정병익(48·사진) 서울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부임한다.
정병익 부교육감(48)은 충남 부여출신으로 예산고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교육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교육재정분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교육부

유아교육과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군산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지냈으며 2018년 9월 1일부터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았다.
"토·일요일 신문 읽니다."
4면 -전주서 청년문제 해법 찾는다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예담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의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가 30일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발한 전북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는 13개 시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홍보와 품질 관리로 인한 고품질 전북 농산물을 소비자들

광역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에게 공급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예담채'는 3년 연속(2014년~2016년)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장관상 수상 3년 연속(2015년~2017년)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도 2년 연속(2017년~2018년) 수상함으로써 명실 공히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광역브랜드로 그 위상을



공고히 했다. 광역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예담채'는 2008년 브랜드 출시 이후 2009년 33억원 2012년 165억원

2017년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보였다.
한편, 전북농협은 올해도 이마트 전매장을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홍보 행사와 캠페인 포도 신고 배 등 과일과 고구마 양파 등의 채소 총 13개 품목에 대하여 폭염피해 극복을 위한 전북 농산물 특별판매전을 하고,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제주 품목인 과일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담채 사과·배 혼합선물세트를 중저가로 공급해 농업인에게는 희망을 소비자들에게는 가치를 제공해 전북을 느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2018 대한민국 대표축제 축! 전주매일 창간

www.firefly.or.kr

제22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 축제

The 22nd Muju Firefly Festival

2018. 9. 1 (토) ~ 9. 9 (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지남공원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45 · 문의, 063)320-5004-17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